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제11호 / '18.7.26(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노사공동위 의견 못좁혀

사측, 휴가 전 타결의지 전혀 없이 자리만 채워

사측, 휴가 전 타결할 생각 없어

휴가 전 마지막 지부교섭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사측은 어차피 휴가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휴가 전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아예 제시안도 준비하지 않은 채 교섭에 나왔다. 몇차례 논의 끝에 제시안을 제출했지만 의견접근에는 실패했다. 26일(목) 12차 교섭도 결국 빈손으로 끝난 채 휴가 뒤를 기약하게 됐다.

노사공동위 참여 안하면 도장 안찍는다

끝까지 쟁점이 된 것은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참여 문제였다. 사측은 중앙교섭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 먼저 타결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기다 자동차 업종이 아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괜히 한 번 발 들였다가 제대로 논의에 참여도 못해보고 끌려다닐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김정태 지부장은 “회사의 입장이 제대로 논의에 반영이 안되면 지부장이 책임지고 대화하겠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도 좋다고 몇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사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개인 상병휴직 요구안에 대해서 사측은 여전히 ‘입원 치료’ 기간만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병원에서도 입원을 장기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의 특성상 입원 치료 보다 다른 치료방식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도 많다. 상병휴직을 위해 일부러 입원하라고 등 떠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측은 ‘치료’기간에 대해 상병휴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1. 2018년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회사는 중앙교섭에서 전국단위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이에 참여한다. 단,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회사의 경영환경 상 수용이 곤란할 경우 재협의한다.

3. 상병휴직기간 인정

① 개인상병휴직(진단서 첨부)에 따른 병가 휴직의 경우, 입원 치료기간까지 상병휴직을 인정한다. 단, 사업장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복직 후 정상근로의 여부, 추가되는 입원치료기간의 정도, 대체인력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기간의 연장 여부를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개인상병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른다.

※ 차기 교섭 : 8월 9일(목) 15시 한국JCC

노사공동위 안들어오면 도장 못찍는다

노 : 이번 주 지나면 여름 휴가다. 휴가 전 교섭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지부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했으면 한다. 그래야 지회도 8월 둘째주에 끝낼 수가 있다. 오늘 의견접근보고 휴가 후 임금까지 마무리했으면 한다. 준비된 안 제시해달라.

사 : 안을 가져오지 못했다. 노사공동위 구성은 여러 회사들의 입장이 다르고, 내심 중앙교섭을 기대했는데 해결을 못했다. 6개 사업장 다 갈피를 못잡고 있다. 안을 못가져왔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봤으면 한다. 지부에서는 원안을 고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나? 노사공동위는 업종도 다른데 참여하면 끌려갈 수 있다. 산별임금 체계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막막한 상태에서 작은 사업장이 들어갔다가 이야기 한마디 못해보고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다.

노 :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부장이랑 논의하면 된다. 다시 검토하면 된다. 회의록에 남겨도 된다. 산별임금 체계 만드는데 우리 사업장하고는 안맞다고 하면 다시 논의하면 되고, 다시 결정하는 시간을 주면 된다. 약속하겠다. 오랫동안 대화했는데 우리 사업장이 소외받고 반영이 안되면 다시 논의하면 된다.

사 : 지부장님 진정성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노 : 이 기구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대화하고 협의하는 기구다. 과반이 동의하면 효력을 갖는 합의기구가 아니다. 노사공동위 안들어오면 불승인이다. 단협 의견접근해도 도장 안찍는다. 사회양극화 해소하고자 하는데 들어와서 얘기하면 된다. 사업장이 노사공

동위 안들어오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간다. 조인식을 할 수 없다.

사 : 노사공동위에 현대기아가 안들어오면 무산되는 건가? 현대기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남는 사업장을 설득시키면 되지 않나?

노 : 현대기아가 구두로 참여 약속했다. 현대차 지부가 10월까지 합의하겠다고 한다. 지역지부들이 노사공동위 들어가면 현대기아가 타겟이 된다. 안들어올 수 없게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노사공동위 들어오고 이후 각 회사의 입장이 반영 안되면 다시 논의하는 것을 하자. 회의록에 남기겠다.

〈정화〉

사 : 모든 회사가 휴가 전 타결은 힘들다는 상황이다. 휴가 후 중앙교섭을 한 번 더 보고 거기서 해결되면 쉽게 의견접근할 수 있다. 안되도 8월 9일 지부교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자.

노 : 지역 사용자들은 중앙 눈치 안봤으면 좋겠다. 회사 의견 반영 안되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깔끔하게 원안으로 가자. 그리고 상병휴직은 입원으로 하는 건 안된다. 아픈 사람에게 일부러 입원하라고 할 순 없다. 노사공동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노사공동위 안들어오면 도장 못찍는다. 대신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한 건 하후상박 임금인상이다. 5년간 임금인상을 봤더니 작은 사업장이 덜 올랐다.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은 사업장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하후상박이 통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